

북스

Books

중국 최고의 판타지 백과사전

산해경 에태일 편저·서경호 김영직 역

“무계국(無稽國)은 장국의 동쪽에 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좋아리가 없다. 또한 그들은 진흙을 먹으며 동굴에 살고 후손을 낳지 않는다. 죽으면 매장하는데, 심장과 간은 죽지 않고 있다가 100년 뒤에 다시 살아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무계국 동쪽에는 흑염(鵲陰)이 있는데, 그가 눈을 뜨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깜깜한 밤이 된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온 지 올해로 11년째가 됐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40여개 언어로 번역돼 200여개국에서 읽히고 4억부 이상이 판매됐다. “해리포터”는 세계적으로 출판과 영화 등 문화 전반에 걸쳐 판타지 현상을 일으켰다. 신화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이 문화 산업을 이끈 시기가였다.

중국의 산해경(BC 202~AD 220 추정)은 고대 중국의 지리, 의학, 역사, 법률, 신화를 총 집대성한 판타지의 백과사전이다. 서울대 중문과 서경호 교수 등이 편역한 ‘산해경’은 중국이 왜 서구 신화에 맞서 산해경에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기상천외한 환상의 세계가 담겨 있는 ‘산해경’은 새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 내려는 현대인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해 준다.

산해경은 지도와 삽화, 유품과 예술 작품들이 풍부하게 수록돼 중국 고대의 풍습 및 생활상,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요순시절에 우(禹)가 홍수를 다스리고 9주를 분할할 때 전국을 사찰한 결과를 그림(산해도)으로 그렸다고 전해진다. 이번에 나온 ‘산해경’은 산해경 원문을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번역했고, 지도와 삽화를 수록해 이



산해경은 고대 중국의 지리와 신화를 총 집대성한 백과사전이다. 산해경에 등장하는 무당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

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깊숙이 감추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후 한나라 유방, 유류 부자가 정리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해경은 크게 ‘산경’ ‘해경’ 두 부분으로 나뉜다. 산경은 중국 및 주변을 다섯 방위로 다시 나누고 447개의 산을 설명하고 있다. 해경은 먼 나라의 풍속과 사물, 영웅의 행적, 신들의 계보, 괴물에 대한 묘사 등 기괴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고문으로 쓰여져 일반인들이 읽기 어렵다. 이번에 나온 ‘산해경’은 산해경 원문을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번역했고, 지도와 삽화를 수록해 이

해를 뜬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봉황’ ‘비옥조’ 등 상상 속 동물들의 유래, ‘황제와 치우의 싸움’ 등도 소개했다. 고대 한국의 모습도 짙하게 거론됐다. 또 도연명과 고염무가 소재로 삼아 시를 지었던 ‘알유’(전설 속 괴물)의 이야기 등 중국 고대사에 얽힌 삽화가 잘 정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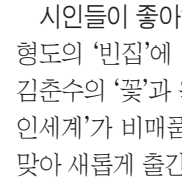
원문에는 직접 나오지 않았던 전설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했다. 찾아 보기 쉽도록 신, 신령한 사물, 신령한 곳, 신선, 별자리, 제왕, 장상 등 분야별로 나온 색인도 곁들였다.

〈안티쿠스·2만8천원〉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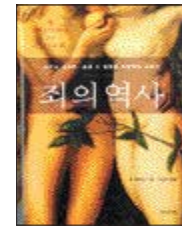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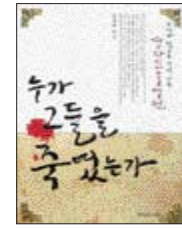
자유에서 길을 잃다=“나비, 봄을 만나다” ‘블루 버터플라이’ 등의 작가 차현숙의 신작 소설집.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6년 동안 종종 우울증을 앓았던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지옥 속에서 쓴’ 작품 여섯 편을 묶었다. 〈이름·9천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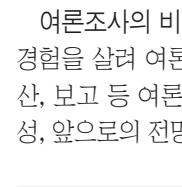
시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애송 명시=김소월의 ‘진달래 꽃’부터 기형도의 ‘빈집’에 이르기까지 시인들이 즐겨 읽는 애송시를 엮었다. 김춘수의 ‘꽃’과 윤동주의 ‘서시’ 등 52편이 실렸다. 2004년 계간 ‘시인세계’가 비매품으로 발간했던 것을 올해 한국 현대시 1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간했다. 〈문학세계사·1만500원〉



죄의 역사=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었던 치명적인 이야기=버지니아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저자 폰 토트만이 종교와 관습의 역사를 통해 미국의 죄의식을 풀었다. 예전에는 정상적이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죄가 되는 ‘죄의 진화’ 과정을 소개했다. 〈리더스북·1만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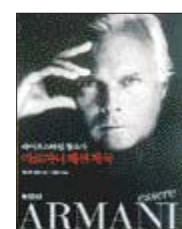
누가 그들은 죽였는가=드라마 밖으로 걸어나온 역사인물 열전=승자의 논리에 밀려 왜곡되거나 감추어진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재조명했다. 태종의 아들 양녕대군,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소현세자, 호종왕자 등 역사 속 비운의 인물 13명을 소개했다. 〈책이있는 마음·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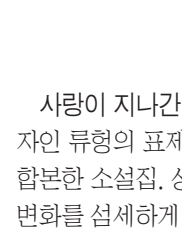
여론조사의 비밀=저자 유우종이 국내 여론조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여론조사의 진행과정을 쉽게 설명했다. 설문, 실사, 전산, 보고 등 여론조사의 전 과정은 물론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도 실었다. 〈공리·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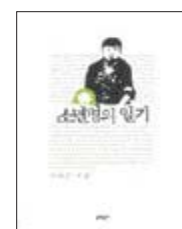
세상을 삼킨 책=‘퍼플라인’의 저자이자 유럽의 유명한 소설가인 볼프강 플라이쉬우어의 예술 스타일 중 하나. 18세기 말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출판을 소재로 철학자 사상, 역사에 살인 사건을 접목시켜 만든 책인 소설이다. 〈랜덤하우스·1만3천원〉



아르마니 패션 제국-라이프 스타일 창조자=세계 37개국에 매장을 거느리고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패션 왕국’의 제왕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이야기. 기자이자 에세이 작가로 활동 중인 저자 레나타 몰로가 아르마니의 성장과정과 ‘패션 제왕’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자’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했다. 〈문학수첩·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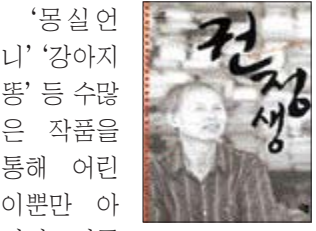


사랑이 지나간다는 느낌도 흐느낌도 없이=중국영화 ‘극무’의 원작자인 류팅의 표제작과 뉴리얼리즘 기수 츠리의 대표작 ‘번뇌인생’을 합본한 소설집. 상반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년의 사랑과 심리변화를 섬세하게 그렸다. 〈책이있는 마음·9천800원〉



소년병의 일기=1950년 한국전쟁 당시 열여섯 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육군에 자원입대해 최전방 등지에서 복무하며 빼어난 비극을 겪었던 저자 박명근의 자전적 참전 일기. 소년병의 눈으로 지켜본 전쟁의 아픔, 배움에 대한 불굴의 집념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사로 살아가기까지 삶의 과정을 실었다. 〈문학동네·1만원〉

고 권정생 선생 1주기 ‘동화나라에 ...’ 떠나



‘몽실 언니’ ‘강아지뽕’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어린 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몽글몽글한 감동을 선사한 작가 고(故) 권정생(1937~2007)의 1주기(17일)를 맞아 그를 기리는 책이 나왔다.

시인 겸 소설가 이원준 씨가 권정생의 일생을 더듬어 청소년용 평전 ‘권정생-동화나라에 사는 종지자 아저씨’로 펴냈다. 권정생의 일생을 소설처럼 꾸미고, 중간에 권정생과 관련된 문인들의 일화와 평론, 글 등을 함께 엮었다.

책은 그가 남긴 동화와 소설 작품들이 어떤 고단한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작은씨앗·1만원〉 /이은미기자 emlee@

구텐베르크의 조선 1·2·3

오세영 지음

한 마디로 ‘잘 빠진’ 대중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이다. 조금은 예측 가능하기도 하지만, 단출한 문장과 드라마틱한 전개 덕에 책은 한 번 손에 잡으면 쉽게 놓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읽힌다.

확장 시절 국사 시간에나 접한, 그래서 어전지 ‘박재민’ 느낌이 드는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기술(서양보다 200년 빠른)과 역사 속 인물 구텐베르크를 연계시켜 흥미로운 이야기를 뽑아낸 솜씨가 돋보인다.

200만부 이상 팔린 ‘베니스의 개성 상인’의 작가 오세영이 펴낸 역사소설 ‘구텐베르크의 조선’(전 3권)은 조선의 장인(匠人)을 통해 한국의 금속활자가

잃어버린 자존심 ‘활자로드’를 찾아서

어떻게 유럽으로 흘러들어갔고, 인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흥미롭게 그려나간 한국형 팩션(Faction·역사와 가상의 이야기가 결합된 소설)이다.

“서양에서는 인쇄술을 발명한 것이 구텐베르크라고 알고 있지만 금속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은 교황사절단이 조선을 방문해 얻어 간 기술이다.”

지난 2006년 ‘서울 디지털 포럼’에 참가한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의 이 같은 발언은 ‘행간의 역사를 읽으며 한국과 세계의 만남을 소재로 소설을 쓰는’ 오씨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3년간의 자료 수집과 집필 끝에 이번 작품을 내놓았다.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소설 속 주인공은 주자소(인쇄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일하는 석주원이라는 가상 인물이다.

세종의 밀명을 받고 장영실과 함께 명나라로 건너

가 새로운 활자를 주조하던 석주원은 티무르 제국의 사마칸드를 거쳐 독일 마인츠로 건너가 구텐베르크를 만난다.

소설은 석주원이 구텐베르크를 도와 새로운 금속 활자를 주조하고 이후 구텐베르크 인쇄소 책임자로 유럽 인쇄 출판업의 중추가 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있다. 또 세계사의 격랑 속에서 각종 사건과 부딪히며 유럽에서 금속활자 주조와 인쇄를 직접 주도, 르네상스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구텐베르크의 회사가 로마교황청이 진행하는 ‘42행 전서’ 인쇄 출판의 계약을 따내는 과정 등이 흥미롭게 전개되며 역시 가공 인물인 석주원의 연이어나 테오도시오스와 구텐베르크,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역사 속 인물을 결합시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에디·각권 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업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우 벨리 팔고 싶으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금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부지역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터서실
●첨단 공업지역내 공장매매 공장건물3층 810평, 대지 800평 신축준공2007년11월

금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건물매매
▶금매매
▶금매매
▶금매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영도 유치권내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地友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남구정양술평터등 상가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분석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